No.8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1. 9 ~ 11. 15

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□ 금주의 이슈
- ◦ 美·日 정상회담 개최, 하토야마 APEC 참석
- ◦ 사상 첫, 체육관서 공개적으로 예산 심사
- ◦ (日)엘피다, 대만 4社와 연합 반도체시장 탈환
- ◦ 막걸리, 일본 1위 백화점 입성
- ◦ 부산, 실내사격장 화재 일본인 관광객 8명 사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- ◦ 경단련 회장, 환경세 도입 반대 의사 표시
- ◦ 메콩강 개발에 5000억엔 지원
- ◦ 정세균 대표, 일본에서 외교활동 수행
- ◦ 이나모리'교토상', 일본판 노벨상으로 키워

□ 경제산업성 동향
- ◦ 경산성 장관, 中日 환경협력 합의
- ◦ '차세대 에너지·사회시스템 협의회' 설치
- ◦ 일본 중소기업 특허, 지자체가 지원
- ◦ 한일 IT세미나 19일 개최
- ◦ 총무성, 지역주권전략회의 실시하기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- ◦ 한・중・일의 對아세안 수출성과, SERI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Japan Weekly Digest
(No.8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○ 하토야마, 오바마 日 체류중 APEC 참석차 출국

- 도쿄에서 오바마(Obama)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APEC 정상회의 참석, 방일(訪日) 중인 외국 정상을 남겨두고 총리가 해외로 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도

· 하토야마 총리의 아시아 중시 노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

· 나오시마 경산성장관은 미국 통상부 대표와 회담에서'동아시아공동체'가 미국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논의라고 설명, 미국과의 관계 중시를 강조

· 美·日 정상은 환경·에너지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, 오키나와, 하와이 간에 설치예정인 차세대송전망「스마트그리드」공동연구 합의

○ 사상 첫, 체육관서 공개 예산 심사

- 일본 도쿄(東京) 신주쿠(新宿)구의 국립인쇄국 체육관서 예산안 공개 논쟁

· 하토야마 총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

· **외무성 삭감 대상 사업** : 在사하린한국인지원공동사업체거출금,일한학술문화청소년교류기금거출금, 일한산업기술협력공동사업체거출금

○ (日)엘피다, 대만 4社와 연합, 세계 메모리반도체 21% 점유

- 일본의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가 대만의 3위 반도체회사인 프로모스와 제휴해 반도체 생산을 위탁

· 엘피다 연합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1.4%에 달해 한국의 삼성전자(34.1%)와 하이닉스반도체(21.7%)에 이어 3위를 차지

○ 막걸리, 일본 1위 백화점 입성

- (주)우리술(www.maggulli.com)은 일본 백화점 다카시마야 20개 전 점포에서 쌀막걸리, 배막걸리 등 2종류의 막걸리 판매를 개시

○ 부산, 실내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8명 사망

- 일본 열도 충격, NHK 등 일본 언론 안전 불감증 지적, 관광객 줄까 염려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경단련 회장, 환경세 도입 반대 의사 표시

- 미타라이(御手洗冨士夫) 경단련 회장은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으나 하토야마 총리가 검토하고 있는 환경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 표명

○ 일본 메콩강 개발에 5000억엔 지원

-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5개국에 향후 3년간 공적개발원조(ODA) 형태로 5000억엔(약 6조5000억원) 이상을 지원

· 하토야마 총리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'동아시아공동체 구상'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지원을 강화해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강조

○ 정세균 민주당 대표, 日 민주당 인사 등과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논의

- 일본을 방문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자와(小澤) 이치로 간사장, 후쿠시마(福島) 미즈호 사민당수 등과 만나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

· 정세균 대표 일행(문희상의원, 송영길의원 등)은 12-15일간 일본을 방문,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, 참정권 부여 문제, 정치교류 및 협력, 북일관계 개선 등에 대해 외교활동을 수행

○ 이나모리가 제정한'**교토상**', 일본판 노벨상으로 키우려는 전략

- 일본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'**교토(京都)상**'은'살아있는 경영의 신'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(稻盛和夫) 교세라(京セラ)명예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것임

- 과학기술분야에서 외국인 포함 4명이 교토상 수상

· 기금은 600억 엔(약 8000억원)에 달해 노벨상 기금(약 500억 엔)보다 큼

· 이나모리 가즈오(稻盛和夫) 교세라 명예회장은 민주당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「행정쇄신위원회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나오시마 경산성장관, 中日 환경협력 합의

- 중국에서 8일 열린'제4회 中·日 에너지절약 환경 포럼'에 참석한 나오시마 경산성장관은 중국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등 환경분야의 42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

· 중국측은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출연하는'중일환경기금'설립을 제안

○ '차세대 에너지·사회시스템 협의회' 개최

-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한 전력망 구축, 전기자동차 보급, 에너지절약기술 도입 등에 관한 정책 검토

· 내년도 4개사업 약 94억엔의 예산 요구

○ 일본 중소기업 특허, 지자체가 돕는다

- 일본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

·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, 일일 17개 정도 중소기업이 특허에 대한 고민을 해결

○ 한일 IT세미나 19일 개최

-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한일IT세미나(주제:'SaaS &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인 시장 랜딩과 미래 발전방향')가 19일 서울에서 개최

○ 총무성, 지역주권전략회의 실시하기로

- 하라구치(原口一博) 총무성장관은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으로 총리를 의장으로 한**'지역주권전략회의'**설치 발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'한·중·일의 對아세안 수출성과', SERI, 2009.11.10

○ 한국의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보다 낮아
- 한국, 중국, 일본의 수출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3/4분기 이후 급감, 총수출 감소 대비 아세안 수출이 가장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

○ 한중일 3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의 비중도 한국은 감소, 중국과 일본은 증가
- 한국의 총수출 중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.7%에서 11.1%로 감소
- 중국과 일본의 수출에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보다 증가
  · 중국: 8.0% -> 8.6%, 일본: 13.2% -> 13.7%

○ 한중일 3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치열하게 상호 경쟁관계
- 한중일 3국은 아세안에 자본재를 수출하고 아세안은 한중일 3국에 석유, 가스 팜 오일, 고무 등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
-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중국, 일본과 겹치는 품목은 각각 6개에 이르고 있음
  · 2008년 기준 한중일 3국의 對아세안 수출 상품 중 석유제품(HS2710), 전자집적회로(HS8542), 선박(HS8901), 철/비합금 열연강판(7208) 등 4개 품목이 10대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
  · 한국의 2008년 對아세안 10대 주요 수출품목이 총수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과 일본의 약 30% 수준보다 더 높음

○ 주력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, 수출품목의 다변화 추진의 필요한 것으로 제안
-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첨단전자제품, 철강제품,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 등

○ 아세안지역의 수출은 한국의 직접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
- 시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, 태국 등 현지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, 자동차 등 중간재 부품 분야의 투자를 권유